

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이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

공정식**

〈요약〉

본 연구는 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이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인들이 출소자를 기피하고 차별하는 의식들의 근저에는 낙인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출소자들의 재범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낙인에 대한 출소자 스스로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편이다.

낙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낙인의 하위척도를 대중낙인, 개인낙인, 그리고 자기낙인으로 구분한 Phillips(2016)의 견해에 기초하였다. 그는 출소자들이 자기낙인보다는 대중낙인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출소자들이 자기낙인보다 대중낙인을 더 크게 인식하면서도, 대인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대중낙인보다 자기낙인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소자들이 외면적인 사회적 인식보다는 내면적인 심리적 인식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내면적 자기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첫째 낙인은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기낙인이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신뢰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가족관계 중에서는 자녀, 사회관계 중에서는 직장동료, 그리고 일반관계 중에서는 자신과의 신뢰에 낙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낙인이 출소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타자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 본 논문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18년도 연구용역사업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연구임(The article was written utilizing the data collected from research service project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심리학박사)

확인해준다.

셋째 출소자들은 자기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자기낙인은 자아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재정립하여 스스로를 일탈자로 인식하고 불량한 생활양식을 보이며, 경력범죄자로 발전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자아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입이 요청된다.

넷째 본 연구는 남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별에 따라 낙인을 인식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낙인은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내 재통합과 재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주제어 : 출소자, 대중낙인, 개인낙인, 자이낙인, 대인관계, 신뢰, 관계회복

| 목 차 |
|------------|
| I. 서론 |
| II. 이론적 배경 |
| III. 연구방법 |
| IV. 분석결과 |
| V. 결 론 |

I. 서론

출소자들은 사회 내에서 가족 등 주위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행동 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평가는 낙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출소자들의 낙인은 범죄경력과 밀접하다. 실제로 범죄의 상당수는 범죄경력자들에 의하여 발생한다. 개인의 범죄경력에 부정적인 세계관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고(Maruna, 2001),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낮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을수록 공격적이고 범죄경력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김은영·강소영, 2012), 전과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소외되고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기회도

줄어든다(Young, 1976). 또한 출소 후에 범죄경력 때문에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약 57%의 출소자들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전과를 빌미로 고용주들이 낮은 임금을 고용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한다(Fletcher, Taylor, Hughes, Breeze, 2001; Metcalf, Anderson, 2001).

집단중심의 문화에서는 이웃이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소수집단에 대하여 더욱 더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특성들이 잘 나타날 수 있다. 이웃으로 범죄자를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65%가 꺼리고, 특히 여성과 연령이 적을수록 범죄자에 대하여 더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박선영, 2012). 출소자들은 일반인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인식을 많이 할수록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Semple, Patterson, Rant, 2005), 알콜의존 등의 위험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Schomerus et al, 2011).

국내의 경우 연간 약 25,000여명 내외의 출소자들이 형기종료 등으로 사회로 복귀하고 있지만, 그 중 3년 이내에 약 23%내외의 출소자들이 재범으로 다시 교도소에 수용된다. 범죄자에게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에게도 평생동안 상처로 남고, 대인관계에서 거래와 교제 범위가 축소되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로 취급되기도 한다(Braithwaite et al, 2001). 이처럼 출소자들은 대인관계가 축소되고 사회 내에서 성공적인 재통합도 쉽지 않은데, 그 근저에는 낙인(stigma)이라는 요인이 작용한다. 그래서 John Irwin(2003)은 낙인을 떨쳐내는 것이 출소자의 사회 내 재통합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는 출소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나쁘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출소자들의 재범을 필요이상 크게 다루고 부모 등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 이웃들도 출소자의 과거 범죄의 행적만 기억하고 기피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그들의 지위를 상실시키며, 비우호적으로 차별을 하게 된다. 이처럼 출소자를 배척하는 지역사회의 경계는 공공안전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지만(Zimring & Johnson, 2006), 결국 주변인을 포함하여 자신과 그 가족을 냉대하는 사회에 대하여 불만과 앙심을 품은 출소자들끼리 모이게 하고 재범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편 오랜 수용기간은 자기책임의식과 자기통제력의 약화에도 영향을 주고 출소자들은 수용생활에 익숙해져서 사회생활에 오히려 부적응하는 문제가 있으며, 스스로 숙식을 해결하는 것조차 수년간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들어 한다.

특히 가족인 범죄자의 수용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부당하게 낙인찍히고 고통 받은 나머지 가족들¹⁾, 그리고 피해자와의 화해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 그리고 전과자 이기에 제한되는 권리들(공직 및 민간 채용 제한 등)때문에, 차라리 교도소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결국 출소자들은 재범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고 (Major and O'Brien 2005), 또 다시 ‘낙인(烙印)이 낳은 낙인(落人)’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출소자라는 낙인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데, 예를 들면, 빈민가에 사는 일부 흑인들은 폭력배로 산다는 것에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다 (Anderson, 1999:15). 또한 낙인과 정적(+) 상관인 전과자 집단의 정체성은 반사회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McAnany et al, 1974:26), 이를 수용하는 출소자들일수록 낙인에 대하여 더 강하게 인식할 것이다(LeBel, 2012).

본 연구는 그동안 일반인들이 출소자에 대하여 인식하는 낙인이 주 연구 대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는 달리 낙인에 대한 출소자 스스로의 인식에 따라 사회 내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신뢰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낙인의 유형과 신뢰의 대상자에 따라서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낙인의 연구

낙인(stigma)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공정하지 않게 차별행동을 하여 이들을 불리한 상태로 몰아가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낙인은 1938년 Tannenbaum이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개입으로 인한 낙인의 효과를 언급한 이후, 1963년 Becker는 공식차별에 따른 낙인을 개인의 정체성과 자기개념으로 내재화하는 것이 재범의 중요 요소라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낙인연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시되었다.

1) 이를 명예낙인(courtesy stigma)이라고 한다. 즉 범죄자의 가족은 낙인적 특성이 없음에도 범죄자와 동일하게 차별과 편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Corrigan and Miller, 2009). 이러한 명예낙인은 주로 범죄자, 정신질환자, 신체장애자, 성매매자, 동성애자 등과 관련된 사람들(부모, 자녀, 친구, 구조자 등)에게 발생한다.

1980년대에는 이론적 구성이 허약하고 경험연구조차 부족하며, 낙인에 의한 행동의 결과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이유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서는 공식낙인이 없더라도 비공식낙인(예를 들면, 부모, 교사, 친구, 이웃 등의 반응)이 재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Braithwaite, 1989; Link et al, 1989; Triplett & Jarjoura, 1994)이 관심을 받았다.

범죄자들의 낙인에 대한 연구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는 비행청소년(김소희·황의갑, 2015; 이희명·김영미, 2017)에 대한 낙인연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김민정·권인숙·김선영, 2017), 재소자(김수정·허찬화·이지연, 2017) 등에 대한 낙인연구들도 있다. 또한 범죄유형별 사회적 거리가 다르고(예, 마약범은 사회적 거리가 멀고, 폭력범은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 범죄자의 고용(69%), 직장동료로 수용(56%), 범죄자의 낙인축소를 위한 홍보정책(81%), 범죄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80%)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는 주장(최인섭·김지선, 1994),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편견이 가장 중요한 재범원인이라는 주장(이원복 외, 2011), 미국 범죄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에 82%가 인식했다는 견해(박선영, 2012), 남성보다 여성이 더, 그리고 40-50대보다 20대에서 더 범죄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주장(이동훈·신연화·최관, 2014)²⁾, 그래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회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김혜미, 2016) 등이 있다.

2. 낙인의 유형

낙인의 주창자인 Goffman(1963)은 혐오스러운 신체(장애인 등)에 대한 낙인, 개인적 결함(범죄자, 알코올중독자, 동성애자, 실업자 등)에 대한 낙인, 그리고 종족적 정체성(흑인, 혼혈인, 여성, 이단종교자 등)에 대한 낙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범죄자는 개인적 결함에 따른 낙인의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욱이 2개 이상의 낙인이 결합하는 복합낙인(complex stigma)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2) 구체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그리고 연령이 더 어릴수록 석방된 범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사회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이들을 이웃으로 수용하는 것,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하는 것, 고용하는 것, 범죄자 자녀들과 어울리는 것 등에 대하여 더 부정적이었고, 이들의 지역 사회적응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하여 더 반대하는 견해가 많았으며, 범죄자와 그 가족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박선영, 2012; 이동훈·신연화·최관, 2014). 반면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범죄자의 사회복귀 혹은 그 가족지원에 더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Sprott, 1999; Applegate et al., 2002; Evans & Adams, 2003)

들면, 여성범죄자이다. 여성이라는 종족적 정체성, 그리고 범죄자라는 개인적 결합이 복합된 낙인자이다. 이러한 낙인은 통상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하여 독특한 특성에 근거한 차이인식과 가치평가의 절하를 포함한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ion)로 이해되지만(Link & Phelan, 2001), 낙인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Link와 Phelan(2001)은 낙인이 수많은 집단의 사람, 상황들, 상황적 맥락들에 적용된다고 하였고, Corrigan, Larson과 Kuwabara(2010)는 낙인을 다수준 용어(multilevel term)라고 설명하였다.

낙인을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자기낙인(self stigma)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고(Corrigan et al, 2005), 대중낙인(public stigma)과 자기낙인(self stigma)으로 구분하기도 한다(Hing et al, 2016).

사회적 낙인 또는 대중낙인은 유사개념으로, 모두 특정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위협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여 그들을 기피하게 만들고 다양한 사회적 기회들(고용, 주거, 취업 등)을 박탈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대중낙인을 출소자가 스스로 내면화하는 것을 자기낙인이라고 한다.

자기낙인은 대인관계에서 스스로 위축되고 자존감이 손상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대중낙인, 개인낙인, 자기낙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Phillips, 2016). 여기서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낙인 자체보다도 낙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Moore 등(2016)의 연구를 보면, 출소자들이 인식한 낙인이 예상된 낙인을 통해 지역사회적응을 더 어렵게 만든다.

첫째 대중낙인(perceived public stigma)은 일반인들이 특정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얼마나 동의한다고 믿는지의 정도이다. 둘째 개인낙인(perceived personal stigma)은 개인이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집단과 관련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과될 것이라고 믿는지의 정도이다. 셋째 자기낙인(self-stigma)은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와 적용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낙인은 출소자들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대중낙인과 개인낙인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낙인이 더 커지게 된다(Munoz et al, 2010).

3. 낙인의 측정

LeBel(2012)은 출소자들의 낙인과 관련된 세 가지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각각의 척도는 이전에 언급된 낙인의 여러 종류들을 측정하였다. 첫째 개인낙인 척도(personal stigma scale)는 ‘사람들은 내가 이전에 수용자였기 때문에 나를 무시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들을 포함하였고, 둘째 집단낙인 척도(group stigma scale)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었던 사람을 무시한다’와 같은 문항들을 포함하며, 셋째 실제로 거부(rejection)당한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는 ‘당신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감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직장에서 거부당했거나 해고당한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세 가지 척도는 출소자들의 신뢰성, 위험성, 정직성과 고용가능성, 그리고 일자리와 사회적 활동, 주거를 찾는 것 등에서 거부의 경험유무 같은 것들을 측정한다.

Moore 등(2013)은 수용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재소자들의 낙인 인식과 기대(Inmate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Stigma measure, IPES; Mashek, Meyer, McGrath, Stuewig, & Tangney, 2002)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식된 낙인과 예상된 낙인을 측정한다. 먼저 인식된 낙인 척도(perceived stigma scale)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범죄자들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예 :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나쁜 사람이라 생각한다.), 반면 예상된 낙인 척도(anticipated stigma scale)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출소 이후에 어떤 대우를 받을지 생각하게 한다(예 : 공동체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나를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항들은 사실 정신질환자들의 낙인측정에서 사용되던 도구들에서 범죄자들에게 맞추어 문항의 용어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Winnick & Bodkin, 2008), 이 척도들을 범죄자 또는 출소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알 수 없다.

이에 Phillips(2016)는 범죄자가 출소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있어서 낙인이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낙인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세 가지 낙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 대중으로부터 느끼는 낙인인식(대중낙인), (2) 개인에게 적용된다고 느끼는 낙인인식(개인낙인), (3)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느끼는 낙인인식(자기낙인)이다. 이들 간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음을 주장하였다³⁾. 즉 출소자들은 대중으로부터 느끼는 낙인인식이

가장 크고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느끼는 낙인인식이 가장 작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기존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개인들이 낙인, 위험요소 혹은 편견과 같은 특성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 잘 적용된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rooks Holliday, King, & Heilbrun, 2013).

4. 낙인의 효과

낙인의 기준으로 피부색, 장애여부, 성별, 연령 등은 공공장소에서도 사람들에게 쉽게 외형상 드러나기 때문에 숨기기 어렵다. 그러나 범죄경력, 특이사항, 성적체성 등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본인이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면, 쉽게 들켜지는 않지만 그 당사자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하여 들킬 것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크다. 따라서 더욱 더 숨기려는 회피심리가 내면화될 수 밖에 없으며, 부적응적 행동, 정신건강의 악화, 지역사회참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함에도 일부 출소자들은 자신이 사회생활에 서투른 것을 인식하고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전과사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공식낙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낙인찍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인식되는 과정에서 미래에 차별을 예상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Major & O'Brien, 2005; Moore et al, 2016) 수치심을 경험하며(Braithwaite, 1989; Benson et al, 2011), 인지적으로 방해를 받아 수행력도 저하된다(Aronson and Steele, 2005).

한편 범죄자대상 낙인의 영향연구(Moore et al, 2013)에서 성별, 연령, 인종, 학력에 따른 낙인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낙인은 출소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출소 후에도 주변인들로부터 불신 받을 것으로 예

3) Phillips(2016)는 이러한 불일치의 이유에 대하여, 첫 번째 의견은 개인들이 “부가적” 정보처리 전략(additive information processing strategy)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자신들이 익숙한 개인들의 경험을 총합하여 그룹의 총합은 개인의 총합보다 커진다는 것이다(Taylor, Wright, Moghaddam, & Lalonde, 1990). 두 번째 의견은 사람들이 내면적인 정보(생각, 감정 등)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이나 선호와 관련된 행동적 정보와 타인의 행동과 선호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자기-타인 불일치의 기저에 깔린 것은 “내적 환상(introspection illusion)” 이다(Pronin & Kugler, 2007). 아마도 출소자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출소자들에 관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그들 자신에게도 적용되는지 혹은 적용되지 않는지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행동적인 정보들보다는 내면적인 근거에 기대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되기 때문에,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5.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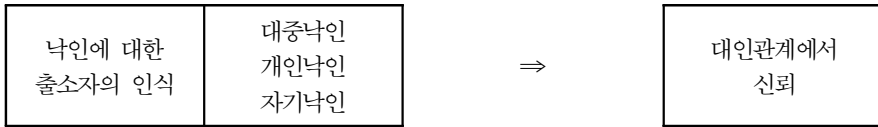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출소자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사회적 낙인이 지역사회 적응과 재범에 역기능을 하지만, 출소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낙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은 대중낙인을 포함하여 개인낙인과 자기낙인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아니라, 낙인에 대한 출소자 자신들의 인식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낙인에 대한 출소자들의 인식이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17개 지부의 협조를 받아 출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수집된 216명의 자료 중에서 응답율이 적은 것들을 제외한 186명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고, 평균연령은 48.39세(sd=8.709)이며, 최소연령은 25세에서 최대연령은 70세였다. 최종학력은 무학 3명(1.6%), 초졸이하 8명(4.3%), 중졸이하 44명(24.0%), 고졸이하 105명(56.5%), 대졸이상 23명(12.6%)이었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낙인이 출소자들의 가족적 사회적 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이에 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이, 특히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대중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은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개인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은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기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은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도구

1) 낙인척도

출소자들의 낙인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개발된 Phillips (2016)의 '낙인에 대한 범죄자의 인식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개 문항에 5점 척도(강하게 반대한다=1, 반대한다=2, 동의도 반대도 안한다=3, 동의한다=4, 강하게 동의한다=5)로 응답을 하며, 3개의 하위척도(대중낙인 :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수감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 / 개인낙인 : 내가 수감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 / 자기낙인 :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가 있다.

각 낙인의 유형별 평균값을 보면, 대중낙인은 평균이 2.955(sd=.709), 개인낙인은 평균이 2.557(sd=.656), 자기낙인은 평균이 2.329(sd=.660)으로, 출소자들은 대중낙인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자기낙인을 가장 작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들(Brooks Holliday, King, & Heilbrun, 2013; Phillips, 2016)과도 일치한다.

변안한 낙인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낙인유형별로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낙인의 세 가지 하위요소들의 문항 중에서 요인값이 낮은 .6미만인 문항(예: 나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다)을 제외한 결과, 각 낙인유형은 모두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대중낙인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KMO척도가 .899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유의확

률이 .000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고, Cronbach's α .919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

둘째 개인낙인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KMO척도가 .907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고, Cronbach's α .919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

셋째 자기낙인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KMO척도가 .876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고, Cronbach's α .909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

〈표 1〉 낙인의 타당도와 신뢰도

| 문항 | 낙인 | | |
|----------------------|--------|--------|--------|
| | 대중낙인 | 개인낙인 | 자기낙인 |
| 나는 위험한 사람이다 | .818 | .792 | .768 |
| 나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다 | .749 | .774 | .737 |
| 나는 믿음만한 사람이 아니다 | .721 | .711 | .681 |
| 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 | .808 | .827 | .817 |
|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없다 | .816 | .772 | .833 |
|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 | .854 | .838 | .841 |
| 나는 존경받을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 | .797 | .783 | .788 |
| 한번 범 죄자이면 항상 범 죄자이다. | .804 | .780 | .737 |
| 고유값 | 5.444 | 5.509 | 5.294 |
| %분산 | 49.486 | 50.081 | 48.128 |
| KMO값 구형검증 | .899 | .907 | .876 |
| Chronbach's α | .919 | .919 | .909 |

2) 신뢰척도

본 연구는 대인관계에서 신뢰라는 것을 ‘출소자가 스스로 배우자 등과의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의 여부’라고 정의한다. 이에 출소자들의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Rempel(1985)이 배우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가까운 관계에서의 신뢰척도(믿음7문항)’을 응용하여, 배우자, 자녀, 친척(부모형제 등), 친구, 직장동료, 이웃으로 까지 확대하였고, Yamagishi(1986)가 나를 대상으로 개발한 ‘일반적인 신뢰척도(6문항)’을 응용하여, 나, 국가, 피해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신뢰를 측정하였다.

변안한 신뢰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의 대상자별로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신뢰척도 문항 중에서 요인값이 모두 .6이상이고, 신뢰는 모두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KMO척도가 .884 ~ .922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유의확률이 모두 .000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고, Cronbach's α .890 ~ .941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

〈표 2〉 가까운 관계에서 신뢰의 타당도와 신뢰도

| 문항 | 신뢰 | | | | | |
|-----------------------------------------------------------------------------|--------|--------|--------|--------|--------|--------|
| | 배우자 | 자녀 | 친척 | 친구 | 직장 동료 | 이웃 |
| ()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에게 말하는 것이 편안하고 심지어 부끄러운 것들까지도 편하게 말할 수 있다. | .810 | .733 | .700 | .706 | .693 | .690 |
| 시대가 변하고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은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고 지지해줄 것이다. | .833 | .853 | .845 | .821 | .821 | .813 |
|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은 나의 안전과 복지에 신경을 쓴다. | .873 | .859 | .839 | .850 | .827 | .859 |
| ()는 나와 무언가를 의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은 나와 상의할 것이다. | .883 | .873 | .850 | .834 | .798 | .808 |
| 나의 약점을 ()에게 드러내더라도 ()은 긍정적인 방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 .923 | .878 | .876 | .861 | .885 | .898 |
| 나의 문제를 ()와 의논할 때, ()은 사랑스러운 태도로 내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 .925 | .887 | .881 | .873 | .813 | .895 |
| 나는 ()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낀다. | .773 | .760 | .798 | .757 | .720 | .763 |
| 고유값 | 5.197 | 4.899 | 4.813 | 4.666 | 4.439 | 4.720 |
| %분산 | 74.238 | 69.992 | 68.756 | 66.660 | 63.416 | 67.424 |
| KMO값 구형검증 | .906 | .922 | .894 | .909 | .884 | .889 |
| Chronbach's α | .941 | .927 | .922 | .890 | .902 | .917 |

일반적 관계에서의 신뢰척도 문항들은 모두 요인값이 .8 이상으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KMO척도가 .892 ~ .909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유의확률이 모두 .000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으며, Cronbach's α .917 ~ .940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

〈표 3〉 일반적 관계에서 신뢰의 타당도와 신뢰도

| 문항 | 신뢰 | | |
|--------------------------------|--------|--------|--------|
| | 나 | 국가 | 피해자 |
| ()는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 .860 | .882 | .871 |
| ()는 믿을 만하다 | .871 | .924 | .869 |
| ()는 좋고 친절하다 | .886 | .888 | .883 |
| ()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롭다 | .890 | .882 | .907 |
| ()는 신뢰롭다 | .858 | .941 | .908 |
| ()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때 친절하게 반응한다 | .815 | .868 | .831 |
| 고유값 | 4.476 | 4.837 | 4.631 |
| %분산 | 74.599 | 80.615 | 77.191 |
| KMO값 구형검증 | .909 | .928 | .892 |
| Chronbach's α | .931 | .917 | .940 |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측정도구의 기준에 맞게 각 변수별로 코딩을 하고 사회통계패키지 SPSS 24.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고 통계적 유의수준이 .05미만인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은 <표 4>와 같다. 종속변수인 대인관계(가족관계=배우자·자녀·친척, 사회관계=친구·직장동료·이웃, 일반관계=나·국가·피해자)에서 신뢰는 낙인과 모두 부정(-) 상관관계에 있다. 즉 출소자의 낙인이 심할수록 대인관계에서 신뢰는 감소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표 4〉 변인 간 상관분석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배우자 | 1 | | | | | | | | | | | |
| 대 | 자녀 | .767** | 1 | | | | | | | | | | |
| | 친척 | .602** | .677** | 1 | | | | | | | | | |
| 인 | 친구 | .519** | .588** | .795** | 1 | | | | | | | | |
| | 직장동료 | .479** | .496** | .572** | .741** | 1 | | | | | | | |
| 관 | 이웃 | .328** | .352** | .464** | .712** | .892** | 1 | | | | | | |
| | 나 | .544** | .565** | .581** | .597** | .516** | .418** | 1 | | | | | |
| 계 | 국가 | .334** | .389** | .314** | .457** | .523** | .514** | .470** | 1 | | | | |
| | 피해자 | .256** | .329** | .324** | .498** | .489** | .529** | .488** | .685** | 1 | | | |
| 에 | 대중 | -.062 | -.161* | -.159* | -.173* | -.315** | -.333** | -.124 | -.267** | -.126 | 1 | | |
| | 개인 | -.342** | -.478** | -.229* | -.324** | -.394** | -.348** | -.377** | -.175* | -.198** | .508** | 1 | |
| 서 | 자기 | -.439** | -.514** | -.405** | -.457** | -.434** | -.343** | -.526** | -.236** | -.207** | .214** | .736** | 1 |
| | 신뢰 | | | | | | | | | | | | |

* $p < .05$ ** $p < .01$

2. 다중회귀분석

1) 낙인이 가족관계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낙인이 가족관계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배우자와의 신뢰에서 회귀분석상의 R^2 은 .159로 낙인이 배우자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약 15.9%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자기낙인($\beta = -3.071$)이 배우자와의 신뢰에 유의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소자의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배우자와의 신뢰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자녀와의 신뢰에서 회귀분석상의 R^2 은 .181로 낙인이 자녀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약 18.1%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자기낙인($\beta = -3.237$)이 자녀와의 신뢰에 유의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소자의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자녀와의 신뢰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친척(부모형제 등)과의 신뢰에서 회귀분석상의 R^2 은 .129로 낙인이 친척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약 12.9%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자기낙인($\beta = -4.008$)이 친척과의 신뢰에 유의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소자의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친척과의 신뢰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가족관계에서 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배우자와의 신뢰 변수 | 비표준화계수 β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베타 | t | 유의 확률 |
|-----------------------------------------------------|-------------------|------|-------------|--------|----------|
| (상수) | 4.979 | .287 | | 17.360 | .000 |
| 대중낙인 | .096 | .096 | .082 | .992 | .323 |
| 개인낙인 | -.172 | .146 | -.136 | -1.177 | .241 |
| 자기낙인 | -.383 | .125 | -.310 | -3.071 | .002 |
| $R^2=.159$, 수정된 $R^2=.145$, $F=11.384$, $p=.000$ | | | | | |
| 자녀와의 신뢰 변수 | 비표준화계수 β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베타 | t | 유의 확률 |
| (상수) | 5.029 | .303 | | 16.603 | .000 |
| 대중낙인 | .059 | .107 | .049 | .552 | .582 |
| 개인낙인 | -.332 | .183 | -.249 | -1.814 | .072 |
| 자기낙인 | -.385 | .123 | -.321 | -3.237 | .001 |
| $R^2=.181$, 수정된 $R^2=.165$, $F=11.339$, $p=.000$ | | | | | |
| 친척과의 신뢰 변수 | 비표준화계수 β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베타 | t | 유의 확률 |
| (상수) | 4.624 | .298 | | 15.497 | .000 |
| 대중낙인 | -.125 | .108 | -.107 | -1.156 | .249 |
| 개인낙인 | .224 | .163 | .178 | 1.374 | .171 |
| 자기낙인 | -.548 | .137 | -.443 | -4.008 | .000 |
| $R^2=.129$, 수정된 $R^2=.113$, $F=7.949$, $p=.000$ | | | | | |

2) 낙인이 사회관계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낙인이 사회관계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친구와의 신뢰에서 회귀분석상의 R^2 은 .149로 낙인이 친구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약 14.9%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자기낙인($t=-3.839$)이 친구와의 신뢰에 유의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소자의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친구와의 신뢰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직장동료와의 신뢰에서 회귀분석상의 R^2 은 .167로 낙인이 직장동료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약 16.7%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대중낙인($t=-2.140$)과 자기낙인($t=-2.837$)이 직장동료와의 신뢰에 유의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소자의 대중낙인과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직장동료와의 신뢰는 감

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웃과의 신뢰에서 회귀분석상의 R^2 은 .108로 낙인이 이웃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약 10.8%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대중낙인($t=-2.655$)이 이웃과의 신뢰에 유의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소자의 대중낙인이 심할수록 이웃과의 신뢰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사회관계에서 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친구와의 신뢰 변수 | 비표준화계수 β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베타 | t | 유의 확률 |
|---------------|-------------------|------|-------------|--------|----------|
| (상수) | 4.539 | .271 | | 16.726 | .000 |
| 대중낙인 | -.097 | .095 | -.092 | -1.012 | .313 |
| 개인낙인 | .107 | .149 | .092 | .718 | .474 |
| 자기낙인 | -.483 | .126 | -.422 | -3.839 | .000 |

$R^2=.149$, 수정된 $R^2=.133$, $F=9.346$, $p=.000$

| 직장동료와의 신뢰 변수 | 비표준화계수 β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베타 | t | 유의 확률 |
|-----------------|-------------------|------|-------------|--------|----------|
| (상수) | 4.576 | .259 | | 17.650 | .000 |
| 대중낙인 | -.200 | .093 | -.198 | -2.140 | .034 |
| 개인낙인 | .003 | .142 | .002 | .019 | .985 |
| 자기낙인 | -.338 | .119 | -.309 | -2.837 | .005 |

$R^2=.167$, 수정된 $R^2=.151$, $F=10.343$, $p=.000$

| 이웃과의 신뢰 변수 | 비표준화계수 β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베타 | t | 유의 확률 |
|---------------|-------------------|------|-------------|--------|----------|
| (상수) | 4.208 | .282 | | 14.927 | .000 |
| 대중낙인 | -.272 | .102 | -.255 | -2.655 | .009 |
| 개인낙인 | .034 | .156 | .029 | .220 | .826 |
| 자기낙인 | -.209 | .131 | -.180 | -1.594 | .113 |

$R^2=.108$, 수정된 $R^2=.091$, $F=6.285$, $p=.000$

3) 낙인이 일반관계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낙인이 일반관계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나와와 이웃과의 신뢰에서 회귀분석상의 R^2 은 .281로 낙인이 나와와 이웃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약 28.1%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자기낙인

($t=-6.037$)이 나와와 신뢰에 유의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소자의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자신(나)과의 신뢰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의 신뢰에서 회귀분석상의 R^2 은 .115로 낙인이 국가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약 11.5%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대중낙인($t=-3.483$)과 자기낙인($t=-3.048$)이 국가와의 신뢰에 유의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소자의 대중낙인과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국가와의 신뢰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와의 신뢰에서 회귀분석상의 R^2 은 .051로 낙인이 피해자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약 5.1%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중낙인($t=-.566$), 개인낙인($t=-.634$), 자기낙인($t=-1.253$) 모두 피해자와의 신뢰에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일반관계에서 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나와의 신뢰 변수 | 비표준화계수 β |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베타 | t | 유의 확률 |
|-----------------------------------------------------|-------------------|---------------|-------------|--------|----------|
| (상수) | 4.977 | .222 | | 22.380 | .000 |
| 대중낙인 | -.039 | .073 | -.039 | -.535 | .594 |
| 개인낙인 | .082 | .117 | .075 | .704 | .483 |
| 자기낙인 | -.616 | .102 | -.576 | -6.037 | .000 |
| $R^2=.281$, 수정된 $R^2=.269$, $F=24.481$, $p=.000$ | | | | | |
| 국가와의 신뢰 변수 | 비표준화계수 β |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베타 | t | 유의 확률 |
| (상수) | 4.428 | .277 | | 15.991 | .000 |
| 대중낙인 | -.319 | .091 | -.287 | -3.483 | .001 |
| 개인낙인 | .259 | .149 | .211 | 1.737 | .084 |
| 자기낙인 | -.394 | .129 | -.333 | -3.048 | .003 |
| $R^2=.115$, 수정된 $R^2=.101$, $F=7.872$, $p=.000$ | | | | | |
| 피해자와의 신뢰 변수 | 비표준화계수 β |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베타 | t | 유의 확률 |
| (상수) | 3.918 | .286 | | 13.684 | .000 |
| 대중낙인 | -.052 | .092 | -.049 | -.566 | .572 |
| 개인낙인 | -.095 | .150 | -.079 | -.634 | .527 |
| 자기낙인 | -.165 | .131 | -.141 | -1.253 | .212 |
| $R^2=.051$, 수정된 $R^2=.035$, $F=3.200$, $p=.025$ | | | | | |

V. 결론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낙인 중에서 자기낙인이 모든 가족(자녀, 배우자, 친척)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을 보면, 낙인이 자녀($R^2=.181$) > 배우자($R^2=.159$) > 친척($R^2=.129$)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낙인 중에서 자기낙인이 친구, 직장동료 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낙인은 사회관계 중 직장동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을 보면, 낙인이 직장동료($R^2=.167$) > 친구($R^2=.149$) > 이웃($R^2=.108$)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낙인 중에서 자기낙인은 일반관계 중 나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낙인은 일반관계 중 국가와의 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출소자의 낙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설명력을 보면, 낙인이 나($R^2=.281$) > 국가($R^2=.115$) > 피해자($R^2=.035$)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 중에서 다양한 대인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중낙인보다 ‘자기낙인’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낙인은 자녀, 직장동료, 자신(나) 등과의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가설 중에서 가설 1의 대중낙인은 일부 대인관계(직장동료, 이웃, 국가)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채택되었으나, 가설 2의 개인낙인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가설 3의 자기낙인은 대부분의 대인관계(자녀, 배우자, 친척, 친구, 직장동료, 나, 국가)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출소자가 인식하는 낙인의 하위요소(대중낙인, 개인낙인, 자기낙인)에 따라 대인관계에서의 신뢰에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대중낙인과 자기낙인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신뢰의 관계대상자에 따라서도 낙인유형별로 신뢰에 미치는 정도 차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의점은 첫째, 출소자들은 보통 일반인들이 전체 범죄자에 대하여 나쁘게 인식하는 경향성(대중낙인)이 있지만, 범죄자인 자신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이

자신을 덜 나쁘게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것(자기낙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소자들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약점인 전과에 대하여는 대부분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신을 비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 생각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출소자의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대인관계에서 신뢰가 낮아진다는 것은 특히 가까운 사이(자녀, 직장동료, 자신 등)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출소자가 자신의 전과사실을 숨기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대인관계 면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자신의 약점을 일부러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숨김으로써 일정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반면에 출소자들은 전과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혼자 소외되어 생활하기를 좋아하며, 신원조회를 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꺼리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형사정책적으로 출소자의 안정적인 대인관계유지와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우선 자기낙인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통하여 대중낙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출소자에 대한 대중낙인을 줄이기 위한 홍보캠페인(노란리본운동, 아름다운 동행 등)은 공단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출소자가 인식하는 자기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거의 없었다. 또한 낙인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사회 상황에서 복지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대처들(예, 은폐 또는 옹호)이 다른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상황별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Major et al, 2002). 예를 들어, 많은 출소자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대처방식으로 자신의 범죄경력을 감출 수 있다(Winnick and Bodkin, 2008). 대조적으로 일부 출소자들은 자신의 전과를 드러내고 전과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처우를 변화시키기 위해 옹호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LeBel, 2009). 따라서 출소자들이 낙인에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기제들이 어떤 상황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결과 낙인의 유형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낙인’이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자기낙인을 감소시키는 것에 수용전념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다(Lucksted et al, 2011; Living et al, 2012).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기낙인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적 접근이 전혀 없다. 물론 출소자들은 스스로 낙인을 소극적으로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낙인의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소자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직업능력을 갖춘 일반인으로 거듭 날 수 있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것처럼 회복탄력성과 같은 내적 힘의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간혹 출소자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을 통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낙인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낙인이라는 주제로 출소자들의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표본의 수가 적다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남자출소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출소자들의 낙인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낙인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출소자의 사회 내 재통합 또는 재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후속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성혜, 이완수, 정진희 (2005).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김민정, 권인숙, 김선영 (2017).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 낙인이 피해자다움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 폭력 후유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5(3), 117-139.
- 김소희, 황의갑 (2015). 학교 내 공식처벌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낙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9(3), 103-129.
- 김수정, 허찬희, 이지연 (2017). 구치소 재소자가 지각하는 낙인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0(1), 65-81.
- 김은영, 강소영 (2012). 수형자들의 교정프로그램과 범죄경력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8(3), 89-111.
- 김혜미 (2016). 사회적응을 위한 출소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2012). 여성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성별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미국 여성수형자의 사례. *한국범죄학*, 3(2), 41-66.
- 이동훈, 신연희, 최관 (2014).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이원복, 김미숙, 박민선, 박혜련 (2011).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II :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 확충방안: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이희명, 김영미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7(9), 549-562.
- 최인섭, 김지선 (1995).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nderson, E. (1999). *Code of the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New York: Norton.
- Applegate, B., Cullen, F., & Fisher, B. (2002). Public views toward crime and correctional policies: Is there a gender gap?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89-100.
- Aronson, J., & Steele, C. M. (2005). Stereotypes and the Fragility of Academic Competence, Motivation, and Self-Concept. pp. 436-456 in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edited by A. J. Elliot and C. S. Dweck.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Benson, M. L., Alarid, L. F., Burton, V. S., & Cullen, F. T. (2011). Reintegration or Stigmatization? Offenders' Expectations of Community Re-Ent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9, 385-393.
-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ithwaite, J., & Braithwaite, V. (2001). Part I: Shame, Shame Management and Regulation. pp. 3-69 in *Shame Management through Reintegration*, edited by E. Ahmed, N. Harris, J. Braithwaite, and V. Braithwait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oks Holliday, S., King, C., & Heilbrun, K. (2013). Offenders' perceptions of risk factors for self and others: Theoretical importance and some empirical data.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0, 1044-1061. doi: 10.1177/0093854813482308
- Corrigan, P. W. et al. (2005).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 Explanatory models and methods for chang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1, 179-190.
- Corrigan, P. W., & Miller, F. E. (2009). 'Shame, blame, and contamination': A review of the impact of mental illness stigma on family members. *Journal of Mental Health*, 13, 537-548. doi: 10.1080/09638230400017004.
- Corrigan, P. W., Larson, J. E., & Kuwabara, S. A. (2010). Social psychology of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Public and self-stigma models. In J. E. Maddux & J. P. Tangney (Eds.), *Social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clinical psychology* (pp. 51-68). New York, NY: The Guildford Press.
- Evans, T. D., & Adams, M. (2003). Salvation or damnation? Religion and correctional ideology.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8(1), 15-35.
- Fletcher, D. R., Taylor, A., Hughes, S., & Breeze, J. (2001). *Recruiting and employing offenders*. Joseph Rowntree Foundation.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ing, N., Nuske, E., Gainsbury, S. M., & Russell, A. M. (2016). Perceived stigma and self-stigma of problem gambling: perspectives of people with gambling problems. *International Gambling Studies*, 16(1), 31-48.
- LeBel, T. P. (2012). Invisible stripes? Formerly incarcerated persons' perceptions of stigma. *Deviant Behavior*, 33, 89-107. doi: 10.1080/01639625.2010.538365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 Link, B. G., Cullen, F. T., Struening, E., Shrout, P. E., & Dohrenwend, B. P. (1989). A modified labeling theory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 An empirical assesment. *American Sociology*

- Review*, 54, 400-423.
- Major, B.,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93-421.
- Maruna, S. (2001). *Making Good: How Ex-Convicts Reform and Reclaim Their L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shek, D., Meyer, P., McGrath, J., Stuewig, J., & Tangney, J. (2002). *Inmate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Stigma (IPES)*.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A.
- McAnany, P. D., Tromanhauser, E., & Sullivan, D. (1974). *The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of Ex-Offender Groups in the Chicago Area*.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 Metcalf, H., & Anderson, T. (2001). *Barriers to Employment for Offenders and Ex-Offenders*. 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 Moore, K. E., Stuewig, J. B. & Tangney, J. P. (2016). The Effect of Stigma on Criminal Offenders' Functioning: A Longitudinal Mediation Model. *Deviant Behavior*, 37(2), 196-218, DOI: 10.1080/01639625.2014.1004035
- Moore, K., Stuewig, J., & Tangney, J. (2013). Jail inmate's perceived and anticipated stigma: Implications for post-release functioning. *Self and Identity*, 12, 527-547.
- Phillips, S. K. (2016). *Offenders' Perceptions of Stigma: Importance and Measurement*.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Psychology in Drexel University.
- Pronin, E., & Kugler, M. B. (2007). Valuing thoughts, ignoring behavior: The introspection illusion as a source of the bias blind spo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 565-578. doi:10.1016/j.jesp.2006.05.011
- Schomerus, G., Corrigan, P. W., Kaluer, T., Kuwert, P., Freyberger, H. J., & Lucht, M. (2011). Self-Stigma in Alcohol Dependence: Consequences for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14, 12-17.
- Simple, S. J., Patterson, T. L., & Rant, I. (2005). Methamphetamine Us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Heterosexual Men and Women. *Journal of Substance Use*, 10, 31-47.
- Sprott, J. B. (1999). Are members of the public tough on crime? The dimensions of public punitivenes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7(5), 467-474.
- Taylor, D. M., Wright, S. C., Moghaddam, F. M., & Lalonde, R. N. (1990). The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 Perceiving my group, but not myself, to be a target for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254-262.
- Triplett R. A., & Jarjoura, G. R. (1994). Theoretical and Empirical Specification of a Model of Informal Label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3), 241-276.
- Winnick, T. A., & Bodkin, M. (2008). Anticipated stigma and stigma management among those

to be labeled “ex-con.” *Deviant Behavior*, 29, 295-333. doi: 10.1080/016396207 01588081.

Young, W. J. (1976). *Impact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n Criminal Offenders: Perceptions of Stigma by Men on Parole*.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at Washington.

Zimring, F. E., & Johnson, D. T. (2006). Public opinion and the governance of punishment in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al Science*, 605, 266-280.

【Abstract】

The Effect of Ex-prisoner's Perception of Stigma on Trus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ng, Jung Sik

This study assumes that the perception of the ex-prisoner's against stigma will affect trus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ior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re is a stigma at the base of the awareness where people avoid and discriminate against ex-prisoner's. This in turn affects ex-prisoner's' recidivism, but there is no study about ex-prisoner's perception of stigma in Korea.

Although stigma can be explained in numerous ways, this study is based on the opinion of Phillips(2016), which divides the subscale of stigma as perceived public stigma, perceived personnel stigma, and self stigma. He insisted that ex-prisoner's believe perceived public stigma higher than self-stigma.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is study.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lthough ex-prisoner's are more aware of public stigma than self-stigma, they are actually more influenced by self stigma in personal relationships. This means that ex-prisoner's are more susceptible to internal psychological awareness than external social recogni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of the program to overcome the internal self-stigma of the released prisoner is required.

In this study, first, stigma, especially self-stigma turned out to have influence on the interpersonal trust. Therefore, as self-stigma level increased, the interpersonal trust decreased in most cases.

Second, it was shown that stigma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children out of family members, co-workers out of social relationship, self trust out of general relationship in. This confirms that stigma is a factor that greatly influences relationship between important people for ex-prisoner's.

Third, since self-stigma negatively reestablish self-identity, make individuals recognize themselves as deviators and show bad lifestyle, which lead them to become habitual offender, ex-prisoner's need to make efforts to overcome self-stigma, and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of program that can make ex-prisoner's have positive self identity is requested.

Fourth, although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only male, it seems that there is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stigma by gender, and influence of stigma not onl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ut also on social reintegration and recidivism imply that these might be good future research topics.

Keywords: Ex-prisoner, Perceived Public Stigma, Perceived Personal Stigma, Self Stigma, Interpersonal Relationship, Trust, Relationship Restoration